

Style 조선일보

MARCH 2019
vol.185



**MONT
BLANC** 



CHANEL

FINE JEWELLERY

KEIRA KNIGHTLEY wears COCO CRUSH rings
in white and beige gold with diamonds.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GUCCI





COLLECTION QUATRE

BOUCHERON

PARIS DEPUIS 1858

SHINSEGAE GANGNAM | GALLERIA EAST | LOTTE AVENUE
LOTTE MAIN DUTY FREE | LOTTE WORLD
02 3479 6028





16



32



조선크리
Style
MONTE BLANC

몽블랑의 파인 워터레밍과 최신 기술이 탄생시킨 새로운 스마트 워치 '서치 2'는 지름 42mm의 유니섹스 시계다. 럭셔리 스마트 워치 최초로 퀄컴(Qualcomm)사의 스냅드래곤 웨어 3100 칩셋을 장착해 성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의 수명도 연장되었다. 시계뿐만 사용할 경우 무려 일주일까지도 사용 가능하다. 워치 페이스는 인디케이터, 바팅화면, 햅틱, 컴플리케이션 등을 변경하면 1천 개 이상의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교체 가능한 11종류의 스트랩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문의 1670-4810



20



12

12 **SELECTION FOR HER** 경쾌한 새 출발과 함께하기 좋은 봄 걸리를 담은 스프링 룩.

14 **SELECTION FOR HIM** 감각적인 액세서리로 남다른 취향을 드러낸 프레시맨(freshman) 스타일 제안.

16 **지구촌의 사선을 한 몸에 받다** 해마다 3월이면 홍콩의 봄은 '현대미술'로 물든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아트 주간'에 도시 전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은 이 브랜드 가치 뛰어난 미술 축제를 동력 삼아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문화 예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트 바젤 행사장이나 고층 건물에 들어선 갤러리, '기록'을 생산해내는 소더비, 크리스티, 서울옥션 같은 경매장 등에서 볼 수 있는 도도한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생기는 대중적 문화 예술 공간, 세계 전역에서 모인 유력 인사들이 도시 재생 같은 이슈를 놓고 벌이는 진지한 '토크' 프로그램 등 복잡 다단하고 종종 모순적인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춘삼월이 가까워지면 많은 이들의 사선이 홍콩에 쏠리는 이유가 아닐까.

18 **START UP!** 기능, 디자인, 가격 면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첫 시계로 적당한 제품은 무엇일까? 워치 전문가 및 애호가 4인에게 물었다. 의미 있는 시작을 함께할 시계 추천 리스트.

20 **IRRESISTIBLE FLOWERS** 강렬한 플라워 프린트로 완성한 프렌치 엘리트 룩의 정수, 레오나르도의 2019 S/S 컬렉션.

27 **BON VOYAGE** 여행에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캐리어.

28 **A GREAT TRAVEL MATE** 올해로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막스마라의 프리미엄 디온 컬렉션, 더 큐브. 봄에 입어도 손색없는 이 컬렉션은 2019 S/S 시즌에 좀 더 트렌디하고 멋진 스타일을 선보인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씨에 어울리는, 여행의 시작부터 살리게 만드는 아우터다.

32 **WELCOME TO MY SWEET HOME** 내 집처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하이 주얼리 부티크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부세론의 프라이빗 맨션이라면 가능하다. 편안함이 갖든 환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방동 광장 28번가 오픈 드 노세를 공개한다.

34 **THE SCENT OF MAGIC** 따뜻하고 향긋한 봄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이맘때, 축하, 고마움, 사랑, 미안함 등 평소 전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을 전해보자. 선물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불리 1803에서 선보인 취향 저격 리미티드 에디션도 잊지 말자.

36 **BLOOMING GARDEN**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로운 꽃을 선물하는 법, 바로 향수다.

37 **EDITOR'S PICK**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고, 봄날처럼 화사한 생기를 불어넣어줄 3월의 뷰티 아이템 리스트.

SCAN WITH THE FENDI APP TO SEE EXCLUSIVE CONTENT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185 March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Jewel
ALWAYS WITH ME
나에게 주는 선물로도 완벽하다.
항상 착용해도 좋을,
레이어드하면 더 멋진
데일리 밴드 링.



(우부터) 비즈 크기에 변화를 준 사탕스러운 화이트 골드 배틀리 링 33만원 **반달리프 아벨**, 일파벳 T를 채인 형태로 교차시킨 화이트 골드 터파니 T 트루 화이트 링 1백50만원 **타파니**, 4개의 브랜딩 특유 모티브 밴드를 합쳐 하나의 링을 탄생시켰다. 코트로 화이트 스톤 링 4백만원대 **부세론**, 기존 모델보다 두꺼운 18K 옐로 골드에 전설적인 라브 브레이크 슬릿 스크루 모티브를 더한 러브 링 3백30만원대 **가르다에**, 부드럽고 심플한 곡선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플레티넘 인파니 링 1백60만원대 **타사키**, 18K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스톤 링 3백만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에디터 정리준

Fashion
MY SMALL LUXURY
현금 없는 시대,
카드 지갑은 필수.



(우부터) 우주의 기운을 담은 카프 스킨 카드 지갑 40만원 **디올**, 컬러 포인트를 준 숏지갑용 카드 지갑 가격 미정 **에르메스**, 다이에 그래픽아트 코팅 캔버스 카드 지갑 24만5천원 **루이 비통**, 귀여운 올고기 그림 숏지갑용 카드 지갑 30만원 **프라다**, 울룩불룩한 마들라세 레더 카드 지갑 46만원 **구찌**, 심플한 엠보스 카프 카드 지갑 28만5천원 **자형시**, 에디터 정리준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볼바림을 타고 온 하이엔드 자동차들의 경쾌한 질주

하이엔드 자동차 시장의 멈추지 않는 질주와 함께 신차 행진도 지칠 줄 모르는 것 같다. 올봄에도 자이더의 개성과 장점을 내세운 세 명품 자동차들을 선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프리미엄 대형 밴 스프린터의 3세대 모델인 '뉴 스프린터(The new Sprinter)'를 내놓았다. 3세대 스프린터는 지난해 초 독일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국내에서는 뉴 스프린터 투어러(Tourer)의 319 CDI와 519 CDI 모델이 판매되며 네 가지 형태와 네 가지 길이, 세 가지 높이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BMW는 X 패밀리의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 '뉴 X7'과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뉴 3 시리즈'를 각각 홍보하면서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뉴 X7은 BMW 라인업 중 가장 넓은 실내 공간과 최고급 인테리어,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 등을 갖춘 시리즈로, 뉴 X7 xDrive30d M 스포츠 패키지와 차별된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뉴 X7 xDrive30d 디자인 퓨어 액셀러, 강력한 성능의 뉴 X7 M50d 등 세 가지 라인업이 있으며 전부 6인승으로 나왔다 (퓨어 액셀러는 7인승도 가능). 뉴 3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1천5백50만 대가 팔린 스포츠 세단의 베스트셀러로, 보다 날렵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었다.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다. 얼마 전 청담동에 롤스로이스 부티크를 새로 꾸민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 단 35대만 존재하는 '실버 그스트 컬렉션(Silver Ghost Collection)' 1대를 선보였다. 전설적인 1907년식 실버 그스트를 모방한 모델로, 초창기 모델의 특징을 잘 담았다. 토요타코리아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를 내놓았다. 기존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3천만원대의 가격에 나온 캠리 하이브리드 LE, 2.5L 다이내믹 포스 엔진에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의 신바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예방 안전 시스템인 TSS와 10 SRS 에어백도 장착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익스플로러와 머스탕의 선전으로 연간 판매 기록을 경신한 포드코리아는 SUV 모델인 링컨 MKX를 '노틸러스(Nautilus)'라는 신모델로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에디터 고성현**



Beauty

BEYOND BEAUTY

유해한 환경에 날로 민감해지는 피부를 위한 긴급 처치전, 더마 코즈메틱, 차별화된 성분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더마 코즈메틱 제품을 엄선했다.

(왼쪽부터) 'CNP 비타-B 에너지 젤 크림'은 발효한 비타민 B 콤플렉스 성분이 지친 피부에 생·외 에너지를 부여해 화사한 얼굴로 바꿔준다. 미백 효과를 지닌 글루타티온을 포함해 비노는 순간 피부 톤이 한결 맑아지며, 글리세린 글루코사이드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 시킨다(50ml 3만9천원). **살리피 레드스카 울트라 스킵 크림**은 극소 부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스킵 케어 제품. 레드 스카 캄플렉스™, 티트리 잎 추출물, 병풀 추출물 등 4종에서 유래한 생명이 피 지 과정 변화를 억제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산뜻한 젤 크림 제형으로 민감성 지성 피부 또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15ml 1만7천원). **살리피 에어리프트 토너**는 보다 건조하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자차극 & 고보습 토너. 에어리피 캄플렉스™, 줄기세포 배양액, 병풀 추출물, 노니 추출물, 한방 추출물 등 다양한 생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한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고 양상을 공급한다. 그뿐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 진정, 보습 등에도 효과적이다(125ml 3만3천원). **다미프리트 어드밴스드 에스테이브 에센스**는 세안 후 피부를 정돈하는 기초 제품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 컨디션을 정상으로 되돌려 활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적당량의 순바닥에 얹어 얼굴을 일순으로 차가워지며 피부 장벽을 따라 레아인한 뒤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켜 사용한다(145ml 3만2천원). **살리피 24 카바크림**은 생체리피아이드가 정량 추출물을 비롯해 마데카 카라미 등 알찬 피부 보호 성분을 함유한 베이스 에스테이브 제품으로 뛰어난 커버력과 피부 케어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 미백, 주름 개선, 지오티신 차단 등 3중 기능성 제품으로 이미 노산 피부를 함유해 화장이 들뜨거나 땀까지 일고 고르게 밀착된다. 톤업, 광채 지속력, 보습 효과가 지워나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40ml 5만9천원). **리코슈프제 리퍼믹 C 하이 에센스**는 알고 민감한 눈가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으로 화의 탄력을 선사하는 아이 케어 제품.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퓨어 비타민 C를 주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붉은 기를 완화하는 만노오스, 자극받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뉴로렌진,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마데카시이드 성분 등을 더했다(15ml 4만5천원). **에디터 이태미**

Exhibition

현대미술, 도시를 수놓다..APMA, 대구미술관, MMCA 과천관 등

올봄을 청초적 영감으로 채운 현대미술 전시가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과천관에서는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전이 오는 5월 6일까지 열린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정치·문화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국제 기획전. 아시아 13개국 작가 1백 명의 작품을 1백70점 넘게 선보인다. 구사마 야요이, 양가 쇼-비레 등 해외 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을 개최한 대구미술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현대 회화의 거장 (알렉스 카츠)전을 택했다. 동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온 카츠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청초 여정을 포괄하는 대규모 전시다. 뉴욕에서 공수한 휘트니 미술관 소장품 'Red Smile'(1963) 등 1백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5월 26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안모레퍼서티브미술관에서는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조각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소장품전 <APMA, CHAPTER ONE - FROM THE APMA COLLECTION>이 5월 19일까지 펼쳐진다. 국내 미술관에서 처음 공개되는 이불의 'Secret Sharer'를 비롯해 미국 필라델피아 거장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Love)', 사진 미술계의 슈퍼스타 인드레아스 쿠르스키의 '평안 V' 등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전시. 또 오는 3월 29일 수원컨벤션센터 내에 들어서는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고는 개관으로 설치미술가 최정화의 개인전 <최정화, 잡화(雜貨)>를 연다. **에디터 고성현**



PRADA

A SHORT FILM ON PRADA.COM



for her
Selection

경쾌한 새 출발과 함께하기 좋은 봄 컬러를 담은 스프링 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레더 소재 싱글브레스트 재킷
7백30만원대, 함께 매치한 핑크
컬러 셔츠 1백만원대 모두 토즈.

트윈드 패브릭 소재
스트랩이 독특한
부이 프렌드 워치
가성 미정 시애틀 워치.

크리올, 연필, 눈금자 등 다양한 스테이시베리 소품을 장착한 노트
32만원대 피노키오는 by 갤러리아 기프트샵.

살버트레 파라기모 02-3430-7854
S.T. 듀폰 02-2106-3596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룩스타카 02-569-3914 말바리 02-3438-6140
브루넬로 쿠차넬리 02-3448-2931 프라다 02-3442-1830
시애틀 워치 080-200-2700 소와브스키 1522-9065
스튜디오 와이츠먼 02-3449-5903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38-6008 갤러리아 기프트샵 02-6905-4199
클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2-2230-1225

화려한 프린트 카바가 멋스러운 노트 9만원대 에르메스.

투명한 프레임이
감각적인 안경
40만원대
올리비올라 by
룩스타카.

중기(중년)에는
이름을 지닌 향수의
7백만원대, 상사한
비건오일 백,
30x22cm, 1백63만원대
클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정교한 라인 52cm 109cm
23만원대 소와브스키.

가죽 트윈 버클 장신으로
포인트를 준 벨트 6만원대 토즈.

볼드한 'Z' 처니
로고 잠금 장식이
멋스러운 숄더백
2백50만원대
살버트레
파라기모.

010로만 받을 수 있는 대박의 비닐 장
신바늘-기적 미정 오지 마네.

이탈리아의 최고 가죽재질로 제작된 스테이시베리 노트
32만원대 피노키오는 by S.T. 듀폰.

심플한 그래픽 컬러의
연필꽂이와 연필
8만원대 브라이더 홀
by 갤러리아 기프트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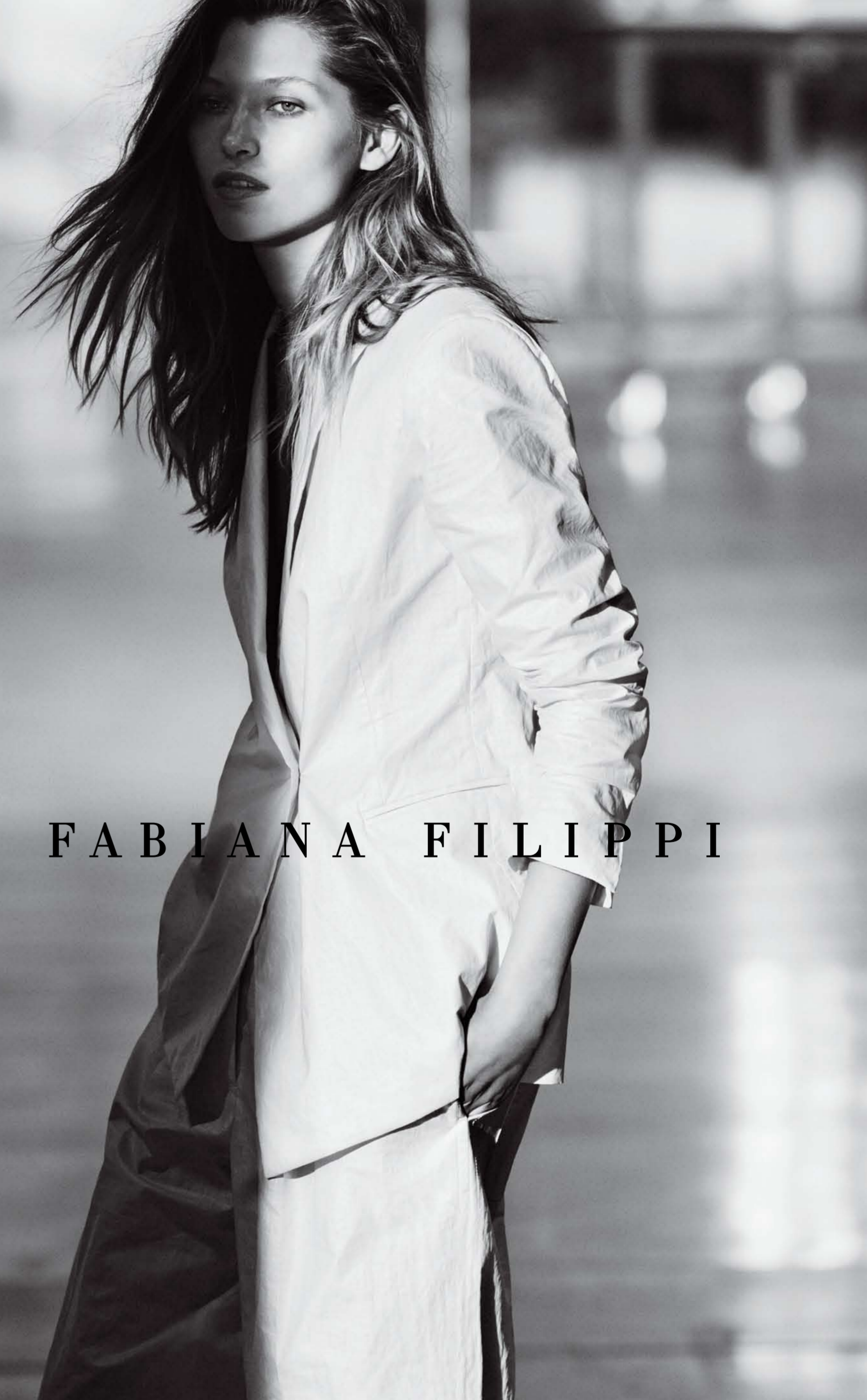
찰(charm)
장식으로 활용
가능한 카트 레더
소재 클러워 키링
24만원대 말바리.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
더블브레스트 재킷
5백만원대, 이너로
매치한 실드 블라우스
2백만원대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이탈리아의 최고 가죽재질로 제작된 스테이시베리 노트
32만원대 피노키오는 by S.T. 듀폰.

스타일리스트 유행성
에디터 이혜미 어시스턴트 촬영

fabianafilippi.com
Hyundai Main / Coex / Mokdong / Busan / Daegu / Ulsan / Pangyo / Chumho
Shinsegae Main / Gangnam / Gyeonggi / Daegu / Centum City / Galleria Main East / Timeworld
AK Plaza Bundang / Lotte Avenuel World Tower



FABIANA FILIPPI



for him
Selection

감각적인 액세서리로 남다른 취향을 드러낸 프레스맨(freshman) 스타일 제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피터, 앙리, 펠리, 로고는 패셔너블하고도 클래식한 브랜드.

문진 또는 소용함으로 사용 가능한 별자리 장식의 데스크용품 70만원대 에르메스.

FF 로고 장식 패브릭 백백 1백50만원대 펜디.

장식적인 브루그 디자인이 멋스러운 로열 가죽 미팅 슈츠.

포인트로 청량하기 좋은 캔버스, 스킵 스트라이프, 펠트 31만원대 토티.

샤르피에, 유우정, 아사미에, 정현, 이태아, 아이하.

로마숫자, 카본송, 컷사피어 장식의 화이트 래커 다이얼을 장착한 라지시리즈 리블레 워치 가격 미정 부세론.

양가죽 재질을 기본으로 코란이 달린 코르노, 코르노 11만원대 토티.

컷아웃 디자인으로 재미를 준 간결한 디자인의 인경 20만원대 알파리오 아르마니 by 록스타카.

양가죽 장식의 가죽 미팅 슈츠.

가방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코란이 달린 코르노, 코르노 11만원대 토티.

모던하게 재해석한 모노그램 패턴을 기본으로 디자인한 1백만원대 펜디.

- 몽블랑 1670-4810
- 루이 비통 02-3432-1854
- 록스타카 02-569-3914
- 벨루티 02-3446-1895
- 부세론 02-6905-3322
- 에르메스 02-542-6622
- 차차스 02-3479-1140
- 토즈 02-3438-6008
- 타파니 02-547-9488
- 펜디 맨 02-2056-9023
- 롤스 로스 02-6905-3456
- 보스 맨 02-515-4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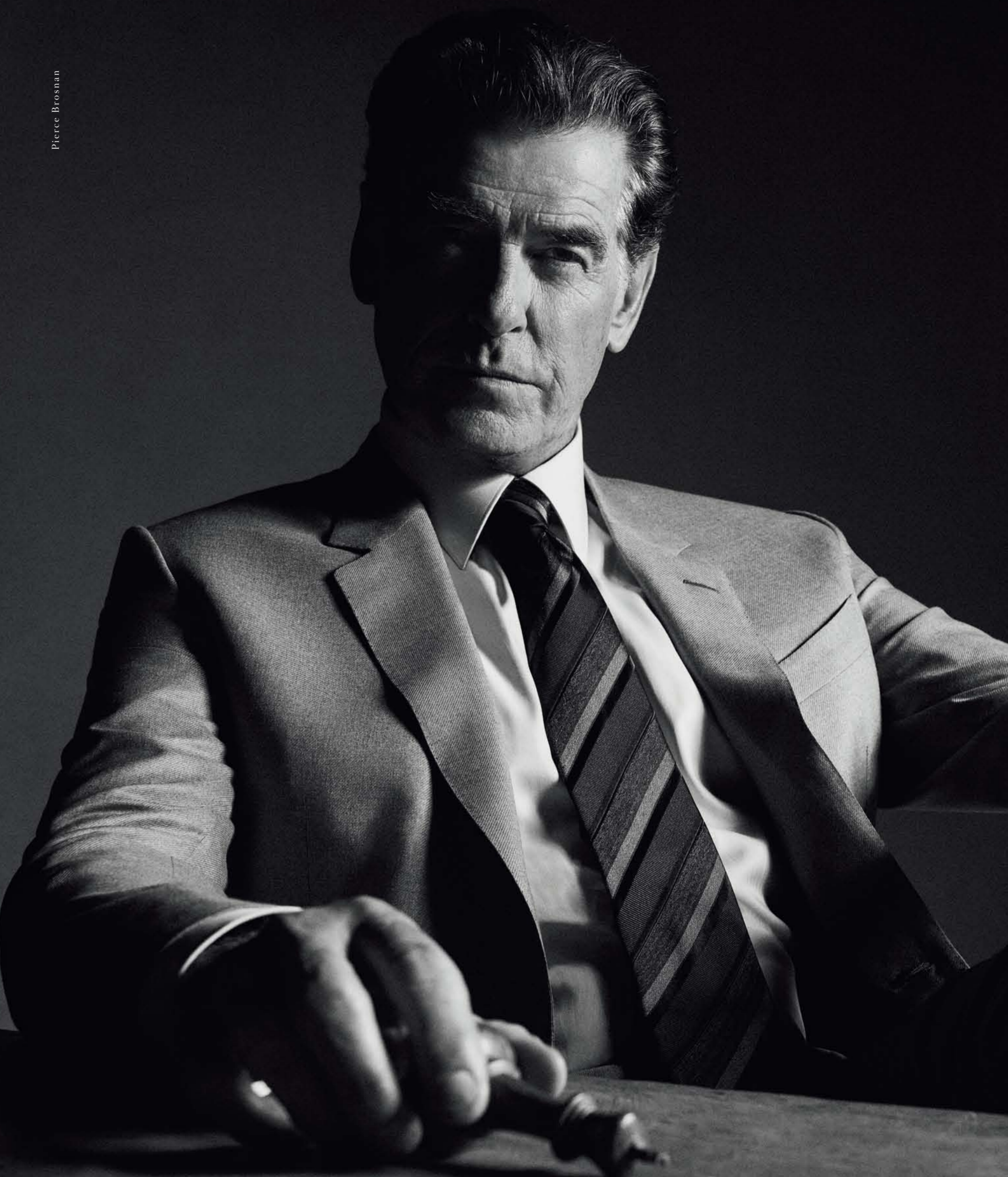


갈라 캠페트를 향상화한 워트 넘처는 디자인의 카프스 링크 47만원대 펜디 맨.

꽃무늬 스트라이프가 시선을 끄는 자갈 가죽 미팅 슈츠.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 49만원대, 크루 넥 울 스웨터 1백50만원대, 다크 블루 울 수트 4백5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도 제안.

Pierce Brosnan



Brioni
ROMA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19 Art Basel in Hong Kong_Preview

지구촌의 시선을 한몸에 받다

해마다 3월이면 홍콩의 봄은 '현대미술'로 물든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아트 주간'에 도시 전체에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은 이 브랜드 가치 뛰어난 미술 축제를 동력 삼아 현대미술의 거점이자 문화 예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트 바젤 행사장이나 고층 건물 속에 들어선 갤러리 공간, 기록을 생산해내는 소더비, 크리스티, 서울옥션 같은 경매장 등에서 볼 수 있는 도도한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대중적 문화 예술 공간, 세계 전역에서 모인 유력 인사들이 도시 재생 같은 이슈를 놓고 벌이는 진지한 '토크 프로그램' 등 복잡다단하고 종종 모순적인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춘삼월이 가까워지면 많은 이들의 시선이 홍콩에 쏠리는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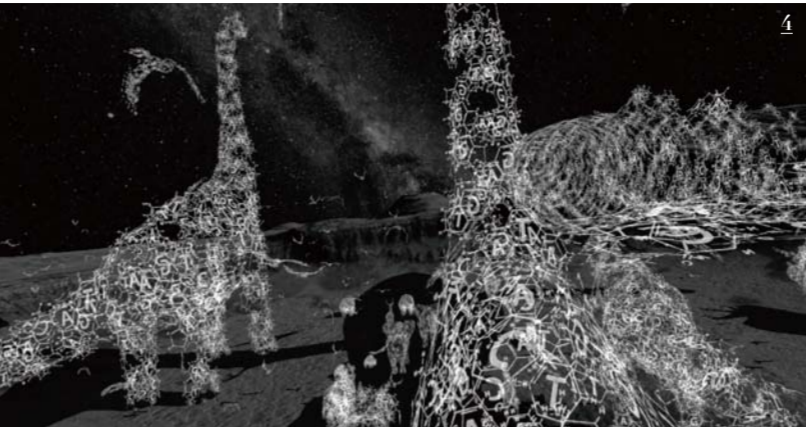


지구촌을 둘러보면 하나의 도시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예는 많지만, 홍콩은 그저 '다면적'이라는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기묘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무려 1백55년이나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97년 반환됐지만, 그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보잘것없는 어촌에서 '아시아의 맨해튼'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로 발돋움한 피란민정환 역사의 도시가 홍콩이다. 경제적 풍요는 굴곡진 운명 속에서도 '홍콩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줬지만,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혼혈아로서 중국에도 영국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공간'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띠게 됐다. 아니, 주권 반환 이후에는 외려 '정체성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더 일리 있게 들린다. <홍콩 산책>이라는 책에서 유명하고 교수의 자이를 확립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허브 도시가 마치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 같다는 맥락에서 '소년 홍콩'이라는 말이 학계에서 유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강조하면서 상하이, 베이징 같은 다른 대도시들과의 경쟁을 두려하고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당수 홍콩인들은 '중국화'보다는 '그들만의 도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어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허브 도시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문화 예술이라는 콘텐트는 흥미롭게 지켜볼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크리에이티브 허브' 주도권을 둘러싼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홍콩이 열외될 수는 없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일류'로 채우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문화 예술 정책은 다 비슷한 개발 논리 아니냐는 뼈대한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홍콩인들의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미술품 수집 같은 일은 '소수만의 사치'라는 시선이 팽배하지만, 주말이면 대중적 문화 예술 공간이 사람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 순기능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글로벌 현대미술 장터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도 홍콩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 콘텐트다. 주 전시장만 놓고 보면 '럭셔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영역인 만큼 '눈요기만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 기간에는 허브 프린트의 천막을 무대로 전개되는 위성 아트 페어 아트 센트럴(Art Central), 야외의 녹음을 '아트'로 수놓은 조각 공원, 다국적 인력과 자본의 조합으로 남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새로운 아트 센터의 실속 있는 프로그램, 아트 마케팅에 공들이는 명품 브랜드들의 화려한 부대 행사, 몸값 높은 홍콩 센트럴을 피해 도시 구석구석까지 생겨난 대안 공간이나 중소 갤러리 등 그야말로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그 축제의 현장을 미리 소개한다.

현대미술 장터에서 세계에 소개되는 한국 작가들

8만 명 가까운 다국적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아트 바젤 홍콩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 올해도 3월 말 사흘간의 장정(29~31일)에 36개국 2백42개 갤러리가 참가해 20세기 초 모던 아트부터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큰 장터가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일단 메인 행사장인 '갤러리즈(Galleries)' 섹션을 보면 갤러리 선정에 까다롭다는 아트 바젤의 관문을 통과한 '뉴페이스'들이 눈에 띈다. 미국과 유럽의 갤러리들인 리처드 나기 Ltd, 폴라 쿠퍼 갤러리, 레진 프로젝트, 앤드루 크랩스 갤러리 등 새롭게 참가한 21개 갤러리가 있다. 또 자카르타의 ROH 프로젝트, 베이징, 홍콩, 방콕에 전시장이 있는 탕 컨템퍼러리 아트 등은 다른 섹션에서 갤러리즈 섹션으로 옮겼다. 대형 설치 작품으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인카운터스(Encounters)' 섹션에는 'Still We Rise'라는 주제로 12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세계적인 작가들을 내세운 여러 갤러리의 협업 작품이 흥미를 끈다. 디스토피아적 내러티브를 담은 이블(Lee Bul) 작가의 'Willing to Be Vulnerable—Metalized Balloon'은 갤러리 타테우스 로카, 리만 머빈, 그리고 한국의 PKM 갤러리가 함께 선보이고, 도시의 건축물을 거꾸로 뒤집어 설치한 엘름그린 &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의 신작 'City in the Sky'는 마시모 드 카를로, 갤러리 페로망, 그리고 한국의 국제 갤러리가 손잡고 내놓는다. 또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작용을 하면서 색을 굴절시키는 호세 다빌라(Jose Dávila)의 작품 'Homage to the Square', 색채와 질감의 향연이 오감을 사로잡을 듯한 태국 작가 미트 자이 인(Mit Jai Inn)의 'Planes Electric' 등의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의 개인전이나 2인전을 선보이는 '인사이트(Insights)' 섹션에 참가하는 한국 갤러리들도 주목된다. 설악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김중하 작가의 개인전(조현갤러리), 단색화 작가로 잘 알려진 최병소 작가의 개인전(우순갤러리), 설치미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 지니 서의 개인전(갤러리 바톤) 등이 싱가포르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청 수 피엡(Cheong Soo Pieng) 등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우순갤러리 이은미 큐레이터는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1970년대 작품 등도 전시될 예정"이라며 "최병소의 작품이 어떤 점에서 기존 단색화 세대와 구분되는지 진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진 작가의 개인전에 집중하는 디스커버리즈(Discoveries) 섹션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로는 30대 작가 오종이 있다.

이러저러한 아트 바젤(Art Basel) 각 갤러리와 제단 등



'어풍당당', 유난히 돋보이는 여성 작가들의 위용

전 세계 문화 예술계를 휩쓸고 있는 흐름을 의식한 것일까? 올해 아트 바젤 홍콩 기간을 수놓을 대표작을 훑어보면 제법 '어풍(女風)'이 느껴진다. 특히 아트 바젤 전시장을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 곳곳의 '장외' 전시에서 눈에 띈다. 설령 그것이 트렌드를 의식한 행보라 해도 역량을 인정받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해온 여성 작가들 만나는 건 반갑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하우저 앤드 위스 갤러리와 미국의 페이스 갤러리는 지난해 문을 연 홍콩 최초의 아트 특화 빌딩 H 퀸스(H Queen's)에 각각 여성 거장의 개인전을 연다. 하우저 앤드 위스는 '거미' 작가로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개인전(3월 26일~5월 11일)을 준비했는데, 아트 바젤 부스에서 루이즈 부르주아를 비롯해 제니 홀저, 필리파 바로 등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들을 내세운 그룹전을 별도로 개최한다. 페이스 갤러리는 70대 미국 작가 메리 코스(Mary Corse)를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명하는 개인전(3월 26일~5월 11일)을 선보인다. '빛과 인식'이라는 주제를 반 세기에 걸쳐 회화로 탐구해온 메리 코스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지난해 <A Survey in Light>이라는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H 퀸스의 하트 홀(Hart Hall)에서는 독일 갤러리 스프루스 마저스(Sprüth Magers)의 또 다른 여성 작가 그룹전 <Eau de Cologne>이 진행될 예정이다(3월 26일~4월 12일). 바바라 크루거, 로즈마리 트로켈, 카라 워커 등의 쟁쟁한 여성 작가들을 아우르는 그룹전으로 1980년대부터 갤러리 설립자인 모니카 스프루스(Monika Sprüth)의 주도로 새로운 담론을 위해 이어졌던 시리즈 형식의 프로젝트. 지난해 애니시 카푸어(Anish Kapoor)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의 VR(가상현실)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글로벌 IT 기업 HTC의 전시 부스(아트 바젤 메인 행사장인 홍콩 컨벤션 센터에 있다)는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최초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친 아티스트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을 초청했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뮤지션, 영화감독 등 다방면으로 활약해온 그녀는 1980년대 초 발표한 '오 슈퍼맨(O Superman)'이라는 전위적인 일렉트로닉 장르의 음악으로 영국 팝 차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자신만의 다채로운 아티스트 여정을 걸어 오다가 크로스 파르렛과 협업한 'Landfall'이라는 앨범으로 지난해 열린 2019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베스트 챔버 뮤직/스물 앙상블 퍼포먼스 부문). 이제 70대 노장이 된 로리 앤더슨(지금도 고인이 된 전설적인 뮤지션 루 리드의 아내이기도 하다)은 이번에도

만년 뉴 미디어 아티스트 신치엔 후양(Hsin-Chien Huang)과 함께 'To the Moon'이라는 VR 작품을 내놓는다.

친산한 활기를 불어넣을 '뉴 스페이스'의 등장

지난해 3월의 '아트 주간'에는 내로라하는 갤러리들과 국내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의 전시 공간인 SA+ 등이 들어선 H 퀸스가 화제의 중심이었는데, 올해도 발품을 팔아볼 만한 새 공간들이 등장했다. 센트럴 지구의 신흥 명소 타이퀸 센터 포 헤리티지 앤드 아트(Tai Kwon Center for Heritage & Art)는 단연 눈길을 끈다. 지난해 초여름 문을 연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중앙청사, 빅토리아 감옥 등 영국 식민지시대의 역사적인 정부 건물들을 살려 마련 루 숲속의 오아시스로 탈바꿈시켰다. 우리나라의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설계를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가 이끄는 헤어초크 앤드 드 뫼른(HdM) 건축 설계 사무소가 지휘한 프로젝트로 무려 10년간 리모델링을 거쳤다고. 타이퀸 센터의 현대미술 전시관인 JC 컨템퍼러리에서는 <Performing Society: The Violence of Gender>와 <Contagious Cities> 전시가 무료로 진행 중이다(아는 4월 21일까지). 또 다른 재생 프로젝트로 방직 공장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컨템퍼러리 아트 등을 아우르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CHAT(Centre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가 3월 16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추엔완(Tsuen Wan) 지역에 자리한 CHAT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 텍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획전 <Unfolding: Fabric of Our Life>를 개최한다. 홍콩 행정부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해온 시둥문화 지구(西九文化區, WKCD)의 경우 당초 많은 기대를 받았던 현대미술관 M+가 아직도 베일을 벗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공연예술을 위한 극장인 시큐 센터(Xigu Centre)는 모습을 드러낸(다시모 운영 중인 M+ 파빌리온에서는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 자인 보(Danh Võ)와 20세기의 저명한 일본계 미국 작가 노구치 이사무(Isamu Noguchi)의 2인전이 4월 22일까지 열린다. 이 밖에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아트 딜러이자 컬렉터 보리스 베르보르트(Boris Vervoordt)가 새로운 갤러리 타운으로 뜨고 있는 홍콩섬 남쪽의 왕척항에 만든 갤러리 공간도 기대된다. 원래 센트럴 지구에 있던 그의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는 새 동지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보마리 작가 김수자를 비롯해 피터 부게누(Peter Buggenhout), 보스코 소디(Bosco Sodi)의 그룹전 <Infinite Mutability>'를 펼친다(3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글 **고영민**



"신인 시용에게 기계식 시계는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스마트 워치라면 '일할 자세가 된 후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동블랑의 시계는 전혀보다 크기가 작아진 덕분에 수트를 입고 일할 때도 잘 어울리며, 수심 50m 방수 기능은 뛰어난 활동성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동블랑의 아이덴티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기능적으로 봐도 현재 출시된 스마트 워치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워치 칼럼니스트 김경규

시계 2 스테인리스 스틸 42mm
1백20만원대 동블랑, 문의 1670-4810, 이니셜 화이트 브론즈 피니시 라이더 72만원대 S.T. 듀폰, 문의 02-518-1967. 시계 2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도와줄 리더 또는 나옴론 소재 인트레치볼 스트랩과 시계에 매치한 옐로 라버 스트랩 16만원대 모두 동블랑, 문의 1670-4810 피어아헤드 컬렉션 컵스 링크 41만원대 S.T. 듀폰, 문의 02-518-1967

"어서 번의 달 칠패 미션을 완수한 오메가의 전설적인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은 브랜드의 개성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계입니다. 이 스피드마스터와 함께 시계생활을 시작한다면 성공을 향한 모험 정신을 항상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일 면에서 보더라도 수트뿐만 아니라 캐주얼룩에도 두루 잘 어울려 일주일 내내 착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모델이죠."
-태인리뷰 대표 박호빈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코엑시엄 크로노그래프 40mm 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11-5797
동블랑 X PSI 컬렉션 컬렉션 키 포브 20만원대, 헤리티지 루즈 & 노와 스피어 노트 9만6천원대 모두 동블랑, 문의 1670-2551, 피카소 라이더 2백30만원대 S.T. 듀폰, 문의 02-518-1967

start Up!

기능, 디자인, 가격 면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첫 시계로 적당한 제품은 무엇일까? 워치 전문가 및 애호가 4인에게 물었다. 의미 있는 시작을 함께할 시계 추천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이스틴트 48원



"뛰어난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의 시계를 공급하고자 설립된 민몰 소위 가성비 좋은 브랜드입니다. 특히 블랙 베이 피퍼티-에이츠는 최근 트렌드 중 하나인 뉴트론 콘셉트에도 딱 맞는 모델로 빈티지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다이아 워치예요. 케이스 지름 39mm 사이즈로 손목이 가는 남성 또는 여성에게도 모두 잘 어울려요. 콜렉트 공식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은 아예 기계식 시계 입문자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홍트 크리아 편집장 이은경

블랙 베이 피퍼티-에이츠 39mm 4백40만원대 튜더, 문의 02-3213-2281.
빅타이 핀 38만원대 S.T. 듀폰, 문의 02-518-1967.
가시 비즈니스 마드 홀더 32만원대 동블랑, 문의 1670-4810.
산투스 드 카르띠에 메니콜링 30만원대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사회 초년생을 꼭 담은 시계인 IWC의 마크 XVIII를 추천합니다. 특히 푸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일리타리의 워치는 태생부터 파질러 워치 브랜드의 기능에 충실한 모델입니다. 시인성, 워치가성 등을 워치(tool watch)로서 진면목을 갖추어 마치 전쟁 같은 직장 생활에 잘 어울리는 시계라고 할 수 있고, 두께 11mm, 지름 40mm의 케이스를 정복해 셔츠 소매 속에서 손목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플레이어타임즈 세무즈 팀장 장병준

파우워 워치 마크 XVIII 40mm 5백60만원대 IWC, 문의 02-3440-5876. 르 브띠 피니스 두에 만년필 1백30만원대, #146 크로노 노트 11만원대 모두 동블랑, 문의 1670-4810
피카소 시가 케이스 42만원대 S.T. 듀폰, 문의 02-518-1967 에디터 이혜미



SWAROVSKI

#FollowYourHeart

Shop the new Valentine's Day Collection

몸으로 연출한 40x220cm 크기의
실크 스카프, 플라워 패턴의
필라쉴 팬츠 모두 레오나르드,
태슬 장식 이어링 핀도라.

irresistible flowers

강렬한 플라워 프린트로 완성한
프렌치 엘리트 룩의 정수,
레오나르드의 2019 S/S 컬렉션.
photographed by zoo yong gyun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의
스웨트 슈트와 실크 카디건
모두 레오나르드 스타일링
살브 네그리스 존 하디.



꽃이 대번이 돋보이는 블랙
홍 실크 드레스 레오나르도



오프 숄더, 방통 슬리브로
우아함을 강조한 화이트 드레스
레오나르도, 플로럴 모티프의 안젤리나
리아 린 스와이로브스키

벨트 디테일로 페이닝한 실루엣을
강조한 A라인 드레스, 플라워
프린트의 사어한 실크 스카프
70×180cm 모두 레오나드, 드롭
이어링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장식 샌들 스투아트 와이즈먼.



깊은 V 네크라인으로 관능미를 더한
플러시 드레스 레오나드.

헤어 이예녹
메이크업 김미정
모델 마야
에디터 이혜미
아사스먼트 심현

레오나드 02-3449-5163
스와로브스키 1522-9065
존 하디 02-2150-2309
핀도라 02-3438-6096
스투아트 와이즈먼 02-3479-1528





timeless Elegance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으로
지난 60년간 예술적 정체성을 담은 옷을
만들어온 레오나르도의 과거, 그리고 현재.

레오나르도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60년을 이어온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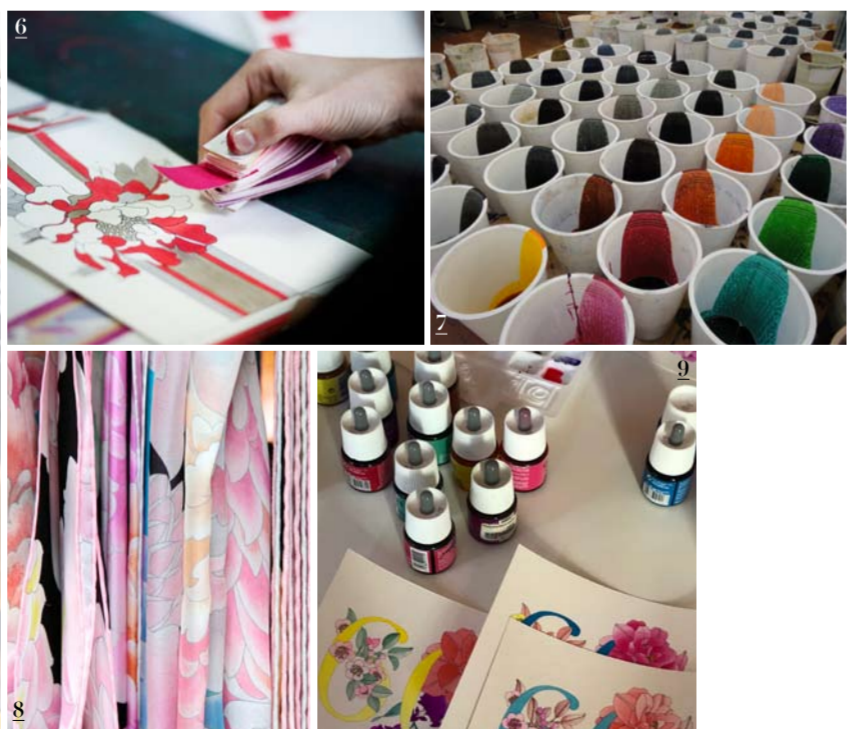
1958년 파리에서 탄생한 레오나르도는 당시 신진 브랜드로서 거대한 쿠틀르 하우스들이 채용하지 않던 새롭고 독창적인 프린팅 기법을 처음 선보이며 소위 '풀리 패션드'(fully fashioned) 프린트 스웨터로 국제 특허를 받는 등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창립자 다니엘 트리부야아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트렌드를 읽는 능력으로 1979년부터 이미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패션, 예술업계와 협업해온 이들은 동서양의 미학을 동시에 아우르는 고유의 플라워 프린트로 널리 사랑 받았다.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컬러와 형태가 조화를 이룬 카멜리아, 백합, 오기드 등의 프린트는 한 단계 높은 로맨틱한 감성을 표현하며 옷 위에 향긋한 정원을 고스란히 옮겨 왔다. 고유의 노하우를 응축한 파우더 기법을 사용해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최상급 실크, 캐시미어 원단에 그린 아름다운 그림은 이제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 요소. 패션을 떠오르고 금세 저버리지만, 레오나르도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철학과 함께 걸어온 60년의 시간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그들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며 하우스가 보유한 독창적인 예술 작품 5천여 점에 영감을 얻어 완성한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테디 라인, 파고다 소매 드레스, 기모노, 미니 튜닉 드레스, 오버사이즈 팔라초 팬츠 등 보다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종의 아이코닉 룩을 만나볼 수 있다.

한층 새로워진 엘리먼트 스타일을 선보이다

이번 시즌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식 우아함에 대한 개념에 물음을 던지며 보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모두를 초대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틴 핑은 광활한 야생의 초원이 펼쳐진 아프리카의 마사이 마라(Masai Mara)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마사이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을 직접 만나는 등 이국적인 풍경에서 얻은 영감을 컬렉션 전반에 녹여냈다. 아프리카 대륙을 뜨겁게 달구는 강렬한 태양, 몽환적으로 일렁이는 신기루, 벌판을 달리는 물소, 얼룩말, 코뿔소, 사자 등 야생동물, 고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원의 거대한 에너지를 런웨이 위에 고스란히 옮겼다. 커다란 포켓 룩을 시작으로 코튼 소재의 개버딘 아우터, 클레이 레터 소재 점프 슈트, 클라인 블루 컬러의 사파리 재킷, 디스트릭티드 슈트 등의 다채로운 상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드라마틱한 실루엣과 컬러 플레이로 시선을 끌었다. 특히 비대칭 세미 플리츠, 점묘법을 강조한 드레이프, 선명한 색감과 매들 장식 등의 디테일은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한 요소. 한편 S/S 시즌 런웨이의 마지막은 브랜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7피스의 의상으로 마무리했다.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가져와 브랜드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담은 이 의상들은 전통적인 실루엣을 그대로 따라 우아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극도로 강조했고, 레오나르도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의 의미와 헤리티지를 상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에디터 **이혜미**



1 화려한 컬러와 프린트가 돋보이는 레오나르도의 2019 S/S 컬렉션 캠페인 이미지. 2 파리에서 진행된 레오나르도 탄생 60주년 기념 행사 모습.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가져온 7피스의 의상을 전시했다. 3-5 레오나르도 2019 S/S 컬렉션의 캠페인 이미지. 6-9 실크 프린트에 관한 레오나르도의 혁신적인 노하우와 정교한 장인 장수를 엿볼 수 있는 비하인드 컷.



bon Voyage

여행에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캐리어.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에디터 이혜미, 사진, 심현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에 충실한 모노그램 핏박스, 35X39.5cm, 6백만원대 **루이 비통**. 기존 에센셜 라인에 비해 무게가 30%나 가벼워진 에센셜 라이트 체 크인 캐리어 M 사이즈, 44X67.5cm, 90만원대 **리모와**, 전면에 카툰 지퍼 포켓으로 수납공간을 더한, 내구성 뛰어난 사피아노 레더 소재 캐리어, 35X49cm, 4백40만원대, 작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행용 배너티 케이스, 22X10cm, 1백19만원대, 양중량은 오래 모티브를 프린팅한 글라스 케이스 34만원대 모두 **프리다**. 견고한 알루미늄 외판에 고급스러운 가죽 트리밍을 더한 7R 마스터 캐리어 스틸 블루 색상, 자동차에 사용하는 소프트 힐 타이어를 장착하고, 볼 베어링-미드레티 멀티 힐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48X71cm, 1백30만원대 **허트만**, 독일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 유연성을 모두 갖춘 초경량 보디가 특징인 가벼운 캐리어. 프레임 부분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덧대 견고한 라인을 완성했고, 컬러 핸들로 포인트를 줬다. 45X43cm, 41만원대 **오론**, 표면을 브러시 텍스처로 마감 차분해 오일과 흙잡이 강한 폴리곤 캐리어. 핸들 위쪽에 재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간단한 조작 버튼으로 캐리어를 고정할 수 있는 스톱퍼 기능을 추가했다. 47X69cm, 42만원대 **벤츠나이트**, 비세토 모노그램 프린트로 장식한 코팅 캔버스 소재의 비세토스 오리지널 라스타 배너티 케이스, 내부에 카드 홀더와 측면 포켓을 더해 수납성을 극대화하고 탈착 가능한 크로스 보디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25X18cm, 71만원대 **MCM**, 브랜드의 최강력 여행 컬렉션인 투미 래티튜드 쇼트 트립 패킹 케이스 캐리어. 자기 강화형 폴리프로필렌 필리스틱™ 소재를 적용해 주변의 충격을 흡수하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견결한 디자인에 인체 공학적인 힐 시스템을 더해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 35.5X46cm, 99만원대 **투미**, 에디터 **이혜미**

루이 비통 02-3432-1854 **리모와** 02-3438-6150 **프리다** 02-3218-5331 **허트만** 02-3448-5914 **오론** 070-7716-0058 **벤츠나이트** 02-567-2486 **MCM** 1600-1976 **투미** 02-539-8160

a great Travel Mate

올해로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막스마라의 프리미엄 다운 컬렉션, 더 큐브. 봄에 입어도 손색없는 이 컬렉션은 2019 S/S 시즌에 좀 더 트렌디하고 멋진 스타일을 선보인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씨에 어울리는, 여행의 시작부터 설레게 만드는 아우터다.



Golf Lover
 봄이 지나면 그래도 아직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3월.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 큐브 컬렉션을 추천한다. 도시를 벗어나 경치 좋은 곳에서의 골프는 라운딩뿐 아니라 그 후 휴식과 주변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런 이유로 여행의 필수 아이템, 더 큐브는 부피가 크지 않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카디건이나 니트 위에는 물론 다운과 겹쳐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움직임이 편리한 넉넉한 실루엣 또한 장점. 필드 위에서의 패션만큼 중요한, 떠날 때부터 라운딩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급스러운 패션을 완성해준다.
 리버사블 디자인이며 허리 벨트가 있어 날씬해 보이는 후드도 있다. 그레이 리버사블 큐브 1백74만원, 레이어드한 핸드메이드 화이트 울 앙고라 코트 3백34만원, 후드에 단 비즈 디테일 큐브 액세서리 54만원 모두 **막스마라**.



더 큐브 컬렉션의 가장 큰 재미는 후드, 소매 등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다. 1, 2 크리스탈 비즈 포인트 큐브 후드 액세서리 블랙과 아이보리의 컬러 각 48만원. 3 큐브 컬렉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모두 제공되는 아이코닉 큐브 패카지. 4 소매에 달 수 있는 비딩 디테일 큐브 소매 액세서리 블랙과 아이보리 각 44만원. 5 링크 큐브 소매 액세서리 74만원. 6 포인트 비딩 디테일 큐브 후드 액세서리 54만원. 7 링크 큐브 후드 액세서리 84만원. 8 비딩 디테일 큐브 액세서리 58만원. 모두 **막스마라**.



후드 끝에 링크 퍼플 부착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링크 큐브 액세서리 84만원, 그레이 리버사블 큐브 1백74만원 모두 **막스마라**.



소매 끝 인쪽에 직은 단추를 달아 쉽게 탈착할 수 있다. 비딩 디테일 큐브 액세서리 58만원, 스카이 블루 큐브 트랜치 1백78만원 모두 **막스마라**.



컬러를 떼어낼 수 있고 뒤집어 입을 수도 있어 흥 내 가지 디자인으로 즐길 수 있는 디테일 큐브 리버사블 스트라이프 트랜치 1백84만원 **막스마라**.



On a Trip

여행 갈 때 챙길 옷이 미망하지 않아 짐을 싸다 말고 고민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듯. 계절이 다른 도시를 방문하거나, 여행지에서 마주한 생각지 못한 비람이나 비 등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감칠 있고 가벼운 아우타가 필수다. 그럴 땐 휴대하기 편한 더 큐브 컬렉션의 방수 코트가 정답이 될 듯하다. 기분을 신뜻하게 해주는 밝은 컬러,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보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밀어 기병에 넣어도 불만하지 않을 정도로 알고 기쁘다.

신뜻한 핑크, 옐로, 라이트 블루 컬러의 리바시벨 워터프루프 큐브 1백7만원 **막스마라**, 7R 마스터 퀘츠 컬러 20인치 트렁크 **하트만**.



Photo by: **Hellen van Meene**

Photo by: **Max Farago**



“카메라를 집어 든 첫날부터, 이것만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었다.”_에릭 매디건 헤크 (Erik Madigan Heck)

Photo by: **Erik Madigan Heck**

Artistic Touch

마누엘라, 리알토, 리브로, 테디베어 등 멋쟁이들의 옷장에 꼭 갖춰야 할 아이템으로 등극한 막스마라 코트. 소재와 핏이 완벽한 데다 옷에 담긴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노하우, 기차까지 느껴져 자타공인 F/W 시즌 마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이유로 케이티 홀스, 앤젤라나 줄리, 메건 마를 등 해외 셀러브리티는 물론 김남주, 최자우 등 국내 셀러브리티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70년 남짓한 전통의 막스마라 코트는 팔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막스마라 코트가 F/W 시즌의 상징이라면 좀 더 캐주얼하고 일상에서 쉽고 실용적으로 코디할 수 있는 아우터로는 더 큐브 컬렉션이 있다. 제품을 담은 정육면체 패키지에서 이름을 딴 이 컬렉션은 브랜드의 DNA이자 모든 제품에 부여하는 디자인 철학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가구에 트렌드와 이지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큐브는 얇은 프리미엄 다운 아우터가 콤팩트하게 접혀 작은 공간 안에 들어 있다. 2008년 첫선을 보인 후 다양한 스타일의 프리미엄 아우터와 그에 어울리는 모놀리딕 액세서리를 큐브 형태 패키징으로 선보이며 현대적인 디자인에 재미, 실용성까지 겸비해 막스마라의 대표적인 인기 아이템이 되었다. 추울 때는 다운 나리코, 더울 때는 추운 나리코 여행을 즐기는 젯셋족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매 해, 매 시즌 스타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컬렉션은 올해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2명과 함께 칼라바리아(선 확보도 진행했다. 그래픽적인 흑백사진 작업으로 유명한 코토 볼로포(Koto Bolofo)와 몽환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에릭 매디건 헤크(Erik Madigan Heck)이 주인공으로 생동감 있는 정사각형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에 따라 큐브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 2명의 개성 넘치는 패셔너 포토그래퍼가 선보이는 막스마라 더 큐브는 한 편의 아트웍로 비주얼로 더 큐브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준다.



Photo by: **Koto Bolofo**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다운 코트들을 사랑하는 이유다.”_코토 볼로포(Koto Bolofo)



Photo by: **Rinko Kawauchi**

Welcome to my sweet home



내 집처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하이 주얼리 부티크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부쉐론의 프라이빗 맨션이라면 가능하다. 편안함이 깃든 환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방돔 광장 26번가 '오델 드 노세'를 공개한다.

지난 1월 20일 1천여 개의 촛불이 방돔 광장의 밤을 밝혔다. 빛이 이끄는 곳에서는 방돔 광장 26번가 '오델 드 노세', 즉 부쉐론의 매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어링 그룹 CEO 프랑수아 앙리 피노와 부쉐론 CEO 헬렌 플뤼-뒤렌스가 부쉐론 탄생 1백60주년을 맞아 방돔 광장 26번가의 레노베이션을 기획하고 그 모습을 공개한 자리였다. '오델 드 노세'는 한 브랜드의 부티크가 아닌 진정한 삶을 반영하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프라이빗 맨션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이란 콘셉트 아래 매종의 가까운 친구인 샬마 헤이예, 레티샤 카스타, 레아 세이두, 주동우, 공리, 우마 서먼, 카트린 드뇌브가 다녀와 홈 파티에 참석했다. 이들은 나탈리 드세이와 성가대원의 연주를 들으며 갈라 디너를 즐겼고, 양젤의 단독 콘서트와 마술쇼가 펼쳐진 애프터 파티로 흥겨움을 더했다. 부쉐론의 자유로운 정신과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공간에서 우아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부티크 이상, 우리 집과 같은 공간

부쉐론의 창립자인 프레데릭 부쉐론은 1893년, 부티크를 오델 드 노세로 이전했다. 오델 드 노세는 왕실 의회의 대리인이었던 찰스 드 노세를 위해 지은 집으로, 1백여 년이 넘게 파리 유명 인사들의 안식처였다. 당대의 주얼러들이라 꽤 거리(Rue de la Paix)의 프라이빗한 살롱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혁신가인 프레데릭 부쉐론은 무이 14세가 주도해서 건립한 방돔 광장에 자신의 부티크를 세운 최초의 주얼러였다.

"방돔 광장 26번가 부티크는 부쉐론의 시작과 같은 곳입니다. 단순한 부티크 이상으로, 집과 같은 공간입니다. 오늘날 이 공간은 매종의 역사와 가치를 상징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깃든 부쉐론의 모든 작업들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유산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키어링 그룹의 동의와 지지 아래 레노베이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EO 헬렌 플뤼-뒤렌스는 방돔 26번가의 새로운 레노베이션을 통해 부쉐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비전을 확고히 했다.

레노베이션은 부쉐론의 가치인 편안함을 방문자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초기 건축물 본연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명한 실내 디자이너인 피에르-이브 로송이 이 작업의 수장이 되어 부쉐론의 비전을 현실화했다. 건축물의 수리와 변형 작업으로 겹겹이 쌓인 오래된 구조물을 뜯어내자, 초기 건축물 본연의 모습과 화려함이 드러났다. 매종의 역사와 장인 정신,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모두 이곳에서 하나로 이어진다. 워크숍 장인들은 물론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리테일까지 모두 한 공간에 자리 잡았다. 부쉐론은 집과 같이 안락한 공간에서 고객을 친구처럼 환영한다. 세일즈 테이블은 고객이 보다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원형으로 교체했고, 세일즈 스태프들은 유니폼 대신 모던함이 돋보이는 의상을 자유롭게 골라



1 장미 모티브 청록과 비즈 상투라에기 돋보이는 2층 '살롱 데 피앙세', 2 방돔 광장 26번가 플레그십 리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된 공리, 3 2층에 위치한 '살롱 데 루피에르'에서는 다이아몬드와 하이 주얼리를 만날 수 있다. 4 '빛을 한 가득 머금은 유리 지붕 아래 부쉐론의 영원한 영감인 자판들 표상한 알터 가든', 5 부쉐론의 오랜 친구 샬마 헤이예, 6 5백42개의 리오프닝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화이트 골드 반동 브레이슬릿, 7 2019년 새로운 개신보인 '잭 드 부쉐론', 유언한 스텔을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스 매치할 수 있다. 8 사실적인 묘사와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메이 사형, 9 매종의 시그니처인 리에르 드 파리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 담쟁이 덩굴에서 영감을 받았다. 10 3층 르 26은 실제 아파트먼트처럼 꾸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1 가수 나탈리 드세이와 성가대원들의 연주가 함께한 갈라 디너, 12 방돔 광장 26번가에 위치한 부쉐론 부티크 '오델 드 노세'의 외관.

있었다. 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듯 여러 세대의 초상화와 세계 각국의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들이 전시된 웅장한 계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색을 지닌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 1층은 빛을 다각도로 발산하는 유리 지붕의 '알터 가든', 루이 15세 스타일의 월넛 나무 패널링으로 장식한 '그랜드 살롱', 카민 레드 컬러의 벽지와 이국적인 물결이 돋보이는 '살롱 누누아', 타임피스를 위한 전용 공간 '살롱 드 올로제리'가 위치한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이아몬드와 하이 주얼리를 위한 공간인 '살롱 데 루피에르'가 모습을 드러내고, 화이트와 골드 컬러 구조의 클래식한 '살롱 데 피앙세', 블루 컬러의 벽과 목가적인 벽지로 장식해 박물관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살롱 데 크레아씨옹' 등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2층 공간이 펼쳐진다. 부쉐론이 추구하는 집의 정신은 3층 '르 26(Le 26)'에서 오롯이 완성된다. 리즈 파리 호텔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은 실제 아파트먼트와 같이 꾸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드링크를 마시며 방돔 광장의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혹은 하룻밤 묵으며 야경을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패밀리 하우스의 가장 안락한 공간인 이곳의 영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쉐론의 토대에도 같은 자연에서 비롯된다. 텀블 무늬의 리그, 수풀을 연상시키는 소파, 숲을 연상시키는 그늘린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다. 리빙 룸은 물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마치 바다의 수면과 맞닿은 듯한 느낌을 주는 대리석 테이블과 파도의 거품 위에 앉아 있는 듯 편안한 소파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침실로 들어가면 파리의 하늘을 표현한 꿈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그 뒤에는 구름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컬러의 대리석과 한때 그랑 살롱을 압도했던 샹들리에로 꾸민 고급스러운 욕실이 기다린다. 청자 벽면과 18세기 중국풍 벽지까지 꾸민 서재에서 즐기는 휴식은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하도록 해준다. 4층과 5층은 매뉴팩처 워크숍, 스톤 및 헤리티지 부서,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매종 부쉐론의 모든 노하우가 결집되어 있다. 한 지붕 아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끝에서 방돔 광장 26번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레노베이션을 기념하는 창조 정신

리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부쉐론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상징적인 파리 광장을 연상시키는 에메랄드 컷에서 영감을 얻어 26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방돔(Vendôme)' 브레이슬릿을 제작한 것. 윤곽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과 다이아몬드를 전체에 세팅하고 2개의 블랙 래커 라이닝을 더한 화이트 골드 모델로 선보인다. 1에서 26까지 고유의 숫자를 새겨 매종 부쉐론의 상징적인 주수와 1백60주년을 기념한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유니크 피스 역시 리오프닝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부쉐론 1/1'을 새겨 그 특별함이 더욱 빛난다. '방돔 브레이슬릿'은 방돔 광장 26번가에서 독점적으로 선보인다. 또 레노베이션을 축하하는 행사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1월 파리 방돔 플레그십 리오프닝에서 영감을 얻어 부쉐론 역사상 최초로 한국이 주최하는 특별한 이벤트 '레 살롱 부쉐론(Les Salons Boucheron)'을 준비했다.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돔 광장 26번가의 플레그십 그랜드 오픈과 동일한 콘셉트로 부쉐론 초기 모습의 럭셔리한 프라이빗 맨션에 온 듯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호텔 파티쿨리에(Hôtel Particulier)'를 선보일 예정이다. 방돔 광장의 캔들 가든을 재해석한 중앙 플라 샴페인 및 카테일을 즐길 수 있는 뒤뜰이 방문자를 맞이하며, 갈라 디너가 이루어지는 에메랄드 홀은 방돔 광장에 와 있는 듯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상과 거울, 조명으로 가득하다. 부쉐론의 시그니처인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Question Mark Necklace)'와 새로 론칭한 '잭 드 부쉐론(Jack de Boucheron)' 컬렉션의 다수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부쉐론의 자유로운 정신과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이벤트를 통해 매종의 과거와 전통에 바탕을 둔 비전을 만나보자.



바디 워시 월드 사봉, 바디로션 레 비자날, 바디 오일 월 앙띠오, 총 3개의 바디 제품으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3월부터 볼리 1803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한다. 23만8천원대 볼리 1803.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유를 이용해 피부를 가꾸었던 뷰티 시크릿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용감이 가볍고 기분 좋은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하는 바디로션 레 비자날. 190ml, 7만5천원 볼리 1803.

고대 그리스에서 약에 쓰이기도 했던 식물성 오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약하고 예민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바디 오일 월 앙띠오. 190ml, 7만7천원 볼리 1803.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바디 워시로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피부결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가뭄이 풍부해 사용감이 좋으며 상쾌함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바디 워시 월드 사봉. 190ml, 7만5천원 볼리 1803.



the scent of Magic

따뜻하고 향긋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이맘때, 축하, 고마움, 사랑, 미안함 등 평소 전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을 전해보자. 선물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볼리 1803에서 선보인 취향 저격 리미티드 에디션도 잊지 말자.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볼리 1803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향과 믿고 쓰는 퀄리티.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옛 프랑스 여인들의 취향이 묻어나는 탐나는 패키지가. 욕실과 화장대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파우치에서 꺼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케이스 디자인은 19세기 쿼터뷰티에서 비롯된 브랜드 볼리 1803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감성은 볼리 1803 제품을 선물 받는 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포장을 뜯 후 1초 만에 미소와 탄성을 불러내는 마법과도 같은 볼리 1803 제품. 3월에는 달콤한 향을 담아 화이트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화이트데이를 기념했다고 해서 알콩달콩한 연인을 타깃으로 한, 마냥 러블리한 느낌만 담은 기프트 패키지를 준비한 것은 아니다.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지인에게도 선물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 지름 38cm의 커다랗고 단단한 초록색 탬버린 케이스에 볼리 1803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퍼퓸드 바디 컬렉션 3종을 담은 이 세트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달콤함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침이나 저녁, 샤워를 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가 남아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바디 컬렉션 3종은 미세한 거품 입자가 부드러운 오일 텍스처 바디 워시 월드 사봉, 촉촉하게 피부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은은한 향을 발하는 퍼퓸 바디로션 레 비자날, 흡수가 빠르고 보습력도 뛰어난 바디 오일 월 앙띠오로 구성했다. 모두 민감한 피부의 소유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 갈바논 에센스와 제라늄 에센스가 어우러져 상쾌하고 중성적인 리넨 테코스 향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볼리 1803 매장을 방문하면 페이스 스킨케어부터 바디 케어, 향수, 스페셜 데이를 위한 다양한 향초 등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직접 제작한 볼리 1803만의 느낌 있는 편지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거나 포장지에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시그너처 캘리그래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그야말로 세상 단 하나뿐인, 감동을 두 배로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선물 준비를 도와주니, 이런 기회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 볼리 1803의 제품은 1803년부터 특별한 식초 화장수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장 배상 볼리 파머시의 뷰티 시크릿을 복원해 만든다. 장 배상 볼리 파머시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유기농 원료를 엄선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접목해 완성한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간다.

국내에서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3월부터 한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청담 부띠끄와 전국 백화점(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트럴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볼리 1803 청담 부띠끄 02-511-3439 **에디터 장민우**

자연의 향을 담은 볼리 1803 오 트리플 워터 베이스 향수, 리넨 테코스

볼리 1803 제품을 처음 개봉한 그 순간부터 다 쓸 때까지 향이 온전하게 간직되는 이유는 바로 고유한 워터 혼합 기술력 때문. 마법과도 같은 이 비법을 사용한 워터 베이스 향수 오 트리플은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물, 베이스 노트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결합한 특별한 제품이다.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옷에 착색되는 등의 불편함도 없다. 무엇보다도 향 지속성이 퍼퓸 에센스와 흡사해 오랜 시간 깊고 은은한 향을 내는 것이 특징. 오 트리플 중 리넨 테코스는 중성적이며 이국적인 상쾌한 향을 보듬어 담았다. 새벽녘 언덕에 깔린 목초의 시냇물, 이슬의 상쾌함, 아생 이끼의 풍성함 등 그린 계열의 향이 온몸을 감싼다.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준 후 맥박이 뛰는 부위와 피부, 머리칼, 그리고 옷 위에 뿌려주면 끝.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 상쾌함을 간직할 수 있다.

75ml, 20만5천원 볼리 1803.



Blooming garden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로운 꽃을 선물하는 봄, 바로 향수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토카 비얀카 오드 파뮈** 유럽 본산지 감성을 담은 플로럴 향수. 톱 노트는 라벤더와 민들레, 미들 노트는 장미와 재스민, 베이스 노트는 마스코로 이루어졌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2-3443-2772 **타파니 오드 파뮈 인텐스** 앰버 노트와 바닐라 향이 따뜻한고 유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마스키 플로럴 향수. 민들레와 핑크 페퍼콘의 톱 노트, 노닐 아이리스의 미들 노트, 앰버와 벤조인의 베이스 노트가 조화를 이룬다. 75ml 10만8천원. 문의 080-850-0708 **이세이 미야케 로디세이 퓨어 베달 드 넥타** 들 한 방울이 활짝 핀 꽃잎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향수. 톱 노트는 그린 앰버, 미들 노트는 카사노 바드, 미들 노트는 재스민 바드와 투베르조. 베이스 노트는 마스코와 샌들우드로 이루어졌다. 100ml 16만2천원. 문의 02-310-5174 **구찌 블룸 아무아 디 피오리** 상쾌한 자연의 향으로 절음의 에너지를 표현한 향수. 톱 노트는 그린 강박농과 카사노 바드, 미들 노트는 재스민 바드와 투베르조. 베이스 노트는 마스코와 샌들우드로 이루어졌다. 100ml 16만2천원. 문의 080-850-0708 **딜라크 도슨 오드 파뮈** 풍성한 꽃향기와 나무 향이 조화를 이루는 남녀 공용 향수. 오렌지꽃과 아이리스, 투베르조, 핑크페퍼 향과 벤조인, 마스코를 담았다. 75ml 21만원. 문의 02-3479-6049 **경량 록 록** 자유히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에게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톱 노트는 민들레와 블랙 카렌트, 미들 노트는 삼키 재스민과 카멜라 라벤더, 베이스 노트는 화이트 마스코와 바닐라 향으로 구성되었다. 50ml 12만7천원. 문의 080-343-9500 **비토레 파라카오 아모 페라 키오** 플로럴을 생각 불러내고 공격적 에너지를 가득한 여성을 위한 프루티 플로럴 향수. 유자꽃과 블랙 카렌트, 핑크 피오리와 재스민, 바닐라와 마스코 향이 생동감을 준다. 100ml 16만4천원. 문의 02-3447-9678 **엑셀 에디터 박경실**



editor's Pick

지치고 상한 피부를 회복시키고, 봄날처럼 화사한 생기를 불어넣어줄 3월의 뷰티 아이템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디올 퍼펙트 쿠션-스티드 캐니유 에디션 허쉬스 아이크로닉한 캐니유 패턴에 작은 스타드로 장식한 이 제품은 피부 차와 손바닥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간단한 터치만으로 디크닝이나 무너짐 없이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며, 에센스를 함유해 피부 속 보습까지 잊지 않았다. 15g 8만2천원. 문의 02-3480-0104. *by 에디터 이혜미*

클라리스 화이트 플라쉬 타깃 스팟 브라이터너 오직 아시아 고객을 위해 개발한 콜론 타입의 다크 스팟 케어 제품.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신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비타민 C 유도체, 염색에 의한 멜라닌의 과도 생성을 방지하는 글리시메이트 디포도산 성분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 부위를 빠르게 밝혀주는 효과를 자랑한다. 7ml 4만8천원. 문의 080-542-9062. *by 에디터 이혜미*

바비 브라운 크라쉬드 리퀴드 립 힐 입술에 착 달라붙어 부드럽고 매끈한 텍스처이며 허버 플라워가 풍부해 볼륨감을 선사하며 하는 완벽한 립 제품을 찾고 있다면 주목. 라즈베리 씨 오일, 발베리 씨 오일 등 수피 프루트 성분은 함유해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발휘한다. 총 13가지 셰이드와 컬러 섀넬 특이 없다는 것도 장점. 6ml 3만4천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장미윤*

필로소피 퓨리티 메이트 심플 하이드라 에센스 필로소피가 그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아이크로닉 퓨리티 라인에 신제품을 추가했다. 나무에서 나는 우유로 알려진 만큼 풍부한 영양분을 지닌 내추럴 코코넛 워터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더불어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임이 없는 가벼운 텍스처 역시 장점. 30ml 3만8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혜미*

시슬리 소 볼름 마스카라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단순히 컬링 효과가 뛰어난 마스카라보다 소중한 속눈썹을 지켜줄 좋은 성분을 함유한 마스카라를 찾게 됐다. 비타민 캄피오, 탈코 에탄 성분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H를 함유한 시슬리 소 볼름 마스카라처럼 토닝과 레이어링이 작용을 하는 이르기엔 성분이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고 프로타민 B가 보다 풍성하고 밀도 있는 속눈썹으로 가꿔준다. 7.5ml 6만2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이혜미*

볼리 1803 릴 앙피외 바디 오일 보다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조함 탓에 보다 강력한 보습 효과를 지닌 오일을 찾던 중 만난 제품. 고대 그리스에서 화장품용, 약용으로 쓰인 식물성 오일에서 영감을 얻어 세사미 시드, 살구 씨, 올리브 오일 등 내추럴 원료를 담았다.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중성적인 향기 역시 마음에 쏙 든다. 190ml 7만7천원. 문의 02-3479-6045. *by 에디터 이혜미*

샤넬 보이 드 샤넬 르 스틸로 수르셀 남성용을 위한 최초의 메이트업 라인 보이 드 샤넬. 그중 필수 아이템인 르 스틸로 수르셀은 선명한 핑클레어 워터프루프 아이브로 펜슬이다. 손쉽게 깔끔한 눈썹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정돈된 인상을 연출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컬러는 브라운, 딥 브라운, 블랙, 세 가지. 8시간 동안 완벽하게 지속되는 효과도 만족스럽다. 0.27g 5만9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장미윤*

라프라리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 3월 15일 출시 예정인 따르면 한 신상 중의 신상. 아침저녁 클렌징과 토닝 후 디스펜서로 한 방울 떨어 사용해보니 2시간에서 무척 유용했다. 얼굴 전체에 도포하면 칙칙하거나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 집중 적용해 결점 없는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60ml 91만3천원.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장미윤*

랑콤 입술워 울레오 세럼 오일과 세럼을 이상적인 비율로 담은 고효능 오일 세럼이다. 디아스코 장미꽃 오일, 사탕 장미꽃 추출물, 장미 추출물 등 고귀한 정제 성분을 담아 향도 좋다. 피부 속 깊이 작용해 탄탄하게 채워주는 기본. 균일하지 않은 피부결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30ml 38만원. 문의 080-001-9600. *by 에디터 장미윤*

데코르테 AQ 트랜스루센트 벨벳 페이스 파우더 피부가 건조해 기온 단계에서 유 수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발랐을 때 뜨겁기 싫상인데, 이 파우더는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채와 윤기를 더해준다. 빠른 시간에 활력 있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해 질 높은 스킨케어 효과를 누리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30g 13만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장미윤*

상하이 립 크리스탈 2019 스프링 컬렉션의 리미티드 에디션 립스틱. 보스워엄 반짝이는 글리터로 고풍한 이 제품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듯 가벼운 사용감이 장점이다. 더욱 특별한 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립스틱의 판매 개수만큼 캐논의 앰블리버 캐논피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4g 7만1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이혜미*

해라 시그니야 마스크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화창한 채 지내는 여성들에게 나이트 케어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 수선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은 나르시스 블룸 캡슐이 타자며 활력을 부여하는 해라 시그니야 마스크는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녹는 크림 타입의 마스크로, 지친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80ml 17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혜미*

SK-II 제네릭스 극강 에센스 피부 본연의 빛을 되찾아주는 극강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SK-II의 베스트 & 스타라블러 에센스. 멜라닌 색소를 케어하고 기미와 잡티가 있는 피부 또는 붉고 노란 피부를 맑게 가꿔준다. 1회 적용량이 지동으로 채워지는 피펫 형태의 스포이트 패키지에 담겨 있어 더욱 편리하다. 50ml 25만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이혜미*





촬영: NICK KNIGHT

BURBERRY
LONDON ENGLAND